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홈바이오 발효용기 '담그네'**

# “집에서도 손쉽게 발효 식초 만든다”

“안전하고 쉽게 발효식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던 권대주 홈바이오 대표는 2013년 고민에 빠졌다. 집에서 발효식초를 담그다 용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을 다친 주부를 여러명 보면서도, 당류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제때 용기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 생기는 사고였다.



권대주 홈바이오 대표가 25일 만에 발효식초를 만들 수 있는 발효용기 '담그네'의 기능을 설명하고 조아란 기자

49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장업을 결심하고 대구한의대 한방바이오창업정보육성센터에 입주했다. 발효 지식을 얻기 위해 사이버대 약용건강식품학과에도 입학했다. 3년간 독학 끝에 2015년 발효용기 '담그네'를 출시했다. 일반 발효용기보다 2-3배 비싼 개당 2만7500원인데도 작년 공영홈쇼핑에서 히트를 쳤다. 여섯 차례 방송에서 애초 목표량의 두 배가 팔렸다.

**발효기간 기존의 4분의 1  
설탕도 기존 대비 30%로 줄여  
공영홈쇼핑 판매 '베스트5' 올라  
올해 매출 30억원 목표**

kg, 솔잎 나무껍질 등 저당도 재료에는 1.3kg을 넣으면 된다. 식초가 된 뒤 하루 다섯 차례 이상 저어주면 3-4일 후엔 발효주도 만들어진다.

◆대형마트에서도 곧 판매 담그네는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작년 8월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다. 권 대표는 “한 번 써본 고객들이 주변에 선물한다고 또 구매해 홈쇼핑 재구매율이 20-30%에 달한다”고 했다.

이 제품은 작년 공영홈쇼핑에서 5억원어치가 팔렸다. 공영홈쇼핑에서 지난해 판매된 제품 가운데 판매량 5위 안에 드는 성적이다. 몸에 좋다는 재료를 쉽게 발효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인기 비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와이드벤 티지-티지핀 모션펜키즈 070-7603-0492 △홈바이오-발효용기 담그네 (053)565-6661 △에브리넷-물결레 로 붓청소기 에브리넷 (031)759-8917 △아이쿠우-크라크라 3in1 멀티케어 1644-1918

결이다. 담그네는 다음달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도 입점한다. 홈쇼핑과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 인지도가 올라간 만큼 대형마트 등에서 본격적으로 판촉활동을 하기로 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30억원이다.

◆“동남아 시장도 공략할 것” 올 연말부터는 해외 시장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작년에만 8회 정도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는데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 수요가 큰 것을 확인했다”며 “순남에게 직접 빛은 술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매출 중 10%가량을 수출로 올리는 게 목표다.

경상·조아란 기자 arco@hankyung.com

# “서른다섯 살 된 미미인형 표대표 완구로 도약할 것”

**이종열 미미월드 대표  
“완구 넘어 생활 캐릭터로”**



국내 대표 아동완구 미미인형(사진)이 올해로 서른다섯 살이 됐다. 미국 마텔의 바비인형에 대항하기 위해 미미월드가 선보인 미미인형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종열 미미월드 대표는 “올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대형 플래그십 미미인형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50억원이던 수출액을 1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올해 목표”라고 9일 밝혔다.

미미월드가 준비 중인 플래그십 제품은 ‘미미의 2층집’이다. 미미가 사는 집을 다른 제품은 여러 있었지만 대형 2층집을 출시하는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 대표는 “국내 시장은 물론 수출을 견인할 제품으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신제품 가격은 8만원대로 잡았다. 기존 제품보다 2-3배 비싸다.

1973년 완구소매점에서 출발한 미미월드는 1982년 미미를 내놓았다. 바비인형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데다 한국 여자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제품으로 인기 물의를 했다. 2007년에는 여아완구뿐만 아니라 유아용 완구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09년 유아캐릭터 애니메이션 번

로로 제품을 대거 출시하며 2011년까지 연간 30% 이상의 고성장을 했다.

2013년부터는 남아완구에도 도전했다. 자동차 완구 브랜드 ‘월드카’에 이어 ‘배틀 엑스칸’ 등을 출시했다. 지난해 매출 704억원 중 약 15%가 남아완구에서 나왔다.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해 지난해에만 해외 매출이 50억원이었다. 이 대표는 “바비인형은 서구적인 얼굴인데 비해 미미인형은 눈매, 콧날 등이 동양인 모습을 하고 있어 아시아에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웃 디자인도 아시아 어린이 기호에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서비스 일자리 키울 국가전략 세워야”

**2017 한국표준협회 서비스워크**



서비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표준협회(회장 백수현)는 지난 7일 송실대 미래관에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사진)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7월 첫째주에 주최하는 ‘서비스워크’ 주간 행사의 하나다.

사회를 맡은 임효창 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35만 개 늘어났는데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이보다 아홉 배 많은 316만 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양적 확대에 기여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연성 인하대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디지털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고객화 등을 제시했다.

정미경 서비스연구소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새롭게 생긴 일자리에 맞춘 인적 자원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철 한국표준협회 전문가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더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표준협회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조아란 기자 arco@hankyung.com

# 모바일 앱으로 직원 건강 챙기는 기업들

**뉴스카페**

**네이버 라인·SK텔레콤 등 도입  
뉴스카페 이용자 78% 체중감량**

임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관리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날 먹은 음식, 운동량 등을 앱에 기록하면 코치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식단 운동법 등을 조언해준다.

네이버의 메신저 자회사 라인은 지난 5월 모바일 헬스케어업체 뉴스카페와 건강관리 앱 뉴스카페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라인 관계자는 도입 배경에 대해 “모바일 앱에 기반한 다른 사내 복지 프로그램 성과가 성공적이었다”며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임직원 건강관

리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뉴스카페를 도입했다. 피트니스센터 운영 등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던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모바일 헬스케어업체 헬스캐넥트의 건강관리 앱 헬스온을 임직원 건강관리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음식 섭취량, 활동량 기록 등 단순한 기능을 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관리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임직원이 영양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들로부터 건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번꼴로 SK텔레콤 본사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초빙해 건강강좌를 연다. 뉴스카페는 코치진을 매달 고객사로 보내 건강강좌와 함께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

모바일 앱이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지난해 말 내지저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논문 따르면 뉴스카페 이용자 3만5961명 중 78%가 체중 감량이 성공했다. 헬스캐넥트가 SK텔레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도 몸무게와 체지방량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원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리근 기자 rklim@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KYOBO 교보생명**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박사를 찾습니다!**

**제 11회 한국경제신문 Vs 경제퀴즈배틀**

**응모자격**  
전국·고등학생 및 대학생(휴학생 포함)

**대회일정**  
온라인 예선 : 2017년 6월 19일(09:00) - 2017년 7월 30일(23:59)  
최종 결선 : 2017년 8월 8일(한국경제신문 본사)  
※상위 일정은 추후 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홈페이지(www.all-con.co.kr) 접수

**문의**  
한국경제신문 콜센터 02-360-4520

**시상내역**

**1등** 60위  
한림의 경기정철기, 변윤비, 헬라켄, 사오미, 채준재, 코스트로, 유익, 6인제, 핸드크림, 굿, 굿, 수민, 김, 위비프렌즈, 마스코트, 세븐타이머, 마스코트, 태블릿 PC, 라벨링시합입력 등

**2등** 30위  
신입홍상지원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 태블릿PC

**3등** 10위  
한국경제신문 사장상, 상금 50만원, 태블릿PC

**4등** 5위  
한국경제신문 사장상, 상금 30만원, 태블릿PC

**입상** 한국경제신문 사장상, 소정의 상품

※특별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산림청산자원부, 새희망씨앗, VRILLANTE, 코스트로, 이라-3대영당